

중학교 국어 2-2





» 표지 이야기

국어 활동을 통해 꿈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림을 채워가는 학생의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경대
					į

중학교

국어 2-2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중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학교와 친구들,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설레던 1학년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낯설기만 하던 중학교 생활도 이제는 익숙해졌지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끝난 이맘때가 되면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국어는 도대체 왜 공부해야 하는 거야?"

도대체 국어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우리말로 말하고 쓸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데 말입니다. 그리고 국어 공부를 하면 무엇이 좋은 걸까요?

『국어』는 우리말과 우리글의 개념과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과목입니다. 내 생각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방법을 알게 하는 과목이지요. 혹시 다른 과목의 수업을 들으면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어려웠던 경험이 있나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해서 속상했던 적이나, 소설이나 영화를 보며 북받치는 감동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국어』를 배우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까닭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더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나와 주변 사람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것처럼 『국어』는 듣기 ·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듣기 · 말하기, 읽기, 쓰기가 기본이고 거기에 문법과 문학이 더해지지요. 바른 문법에 근거해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읽고, 잘 쓰며, 문학 작품도 깊이 있게 감상할 줄 아는 통합 능력을 기르는 것이 국어 공부의 처음과 끝입니다. 당장은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아도 선생님과 함께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말과 글의 달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언어는 물이나 공기와 같아서, 우리는 그것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처럼 바르고 잘 통하며 아름다운 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그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자들이 학생들을 응원하며



구성과 활용

대단원을 펼치며



도입과 계획

- 생활 속의 언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질문을 통해 대단 원 학습 목표를 이해해 보자.
- 대단원의 흐름을 살펴보고, 사전 점검을 통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워 보자.



소단원 학습 내용과 관련 하여 간단한 준비 활동을 하고, 소단원의 학습 목표 와 내용을 확인해 보자.

생각 열기



제재 중심 단원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이해하기에 적합한 다양한 읽기 제재와 문학 작품을 제시하였다.







단원의 내용을 이해하고, 목표에 도달하고, 이를 우리의 실생활이나 다른 교과에 적용해 보도록 구성하였다. 스스로 또는 친구들과 협력하여 활동을 해 나가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완성해 보자.





활동 중심 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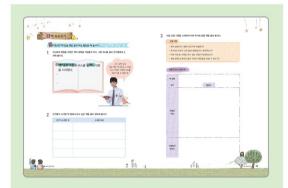
소단원의 학습 목표를 단계별 활동을 하며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어』 과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학습, 나아가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다양한 활동을 해 보자.

★ 창의 · 융합 활동

활동의 내용을 다른 영역이나 교과 와 융합하는 창의·융합 활동을 통해 사고력을 키워 보자.



한 학기 한 권 읽기



한 학기 동안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 읽기 활동을 네 단계로 구성하였다. 독서 활동을 통해 책 읽는 즐거움을 느껴 보자.





단원+단원



통합과 적용

각 소단원의 내용을 통합하여 적용함으로써 대단원의 목표를 달성해 보자.

대단원을 닫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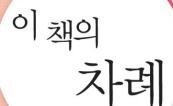
정리와 점검

대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 점검해 보자.

더 나아가기

궁금한 내용, 더 알고 싶은 것을 생각하도록 하였다. 스스로 질문을 하며 대단원의 목표를 내면화해 보자.





☑ 문학

학습 요소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 에 주목하여 작품 감상하기

(1)

시선과 목소리

(1)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_ 복효근

12

(2) 내가 그린 히말라야시다 그림 _ 성석제

20

학습 요소

-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고 한 글의 우수성 탐구하기
- 핵심 정보가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발표하기

2

한글은 바르게, 발표는 효과적으로

(1) 우리의 훈민정음

60

(2) 정보를 담은 그림, 픽토그램

74

[한 학기 한 권 읽기]

☑ 문학 🦰 읽기

🛃 문법 阁 듣기 · 말하기

학습 요소

• 책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읽기를 생활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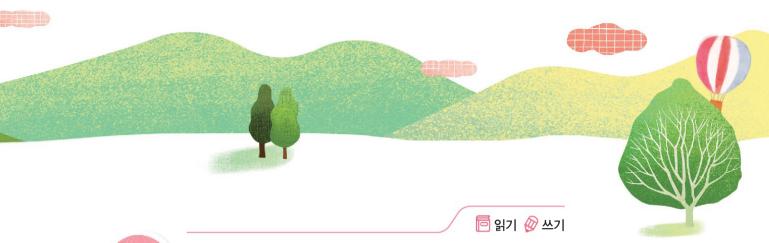
생활 속의 문학 읽기

92





(1114) 27(1) 221 211 343 343 344 34 344 344 34





함께 이해하는 설명

(1) 세금, 얼마나 알고 있나요 _ 조준현

(2) 설명하는 글 쓰기

118

130

학습 요소

- 다양한 설명 방법 파악하기
- 대상의 특성에 맞는 설명 방법을 활용하여 글 쓰기

🛃 문법 阁 듣기 · 말하기



상황에 맞는 대화

(1) 담화와 국어 생활

(2) 들판에서 _ 이강백

150

164

하고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 소통하기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학습 요소

 ·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

자료 출처 202











대단원을 펼치며 때





- ◆ 조난을 당한 두 사람이 각자의 처지에서 어떤 말을 했을지 생각해 봅시다.
- ♦ 같은 상황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말의 내용이 달 랐던 경험을 말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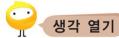
학습 목표

- 작품에서 보는 이와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 보는 이나 말하는 이의 관점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다음은 외국의 한 공익 광고입니다. 광고를 보고, 영상 속 소년과 친구들의 마음을 헤아려 봅시다.





이 영상에 소년과 친구들 각각의 관점에서 내레이션을 입혀 보고, 그 차이를 말해 봅시다.



일상생활에서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했던 경험을 떠올려 말해 봅시다.

바 친구들은 도시락에 사랑과 우정을 담았고, 소년은 그런 도시락에 큰 감동을 받았을 거야. 그런데 이 경험을 친구들이 말하느냐 소년이 말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 이처럼 시도 말하는 이의 관점을 고려하여 읽으면 더욱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을 거야. >>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효근

어둠이 한기처럼 스며들고 배 속에 붕어 새끼 두어 마리 요동을 칠 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는데 먼저 와 기다리던 선재가 내가 멘 책가방 지퍼가 열렸다며 닫아 주었다.

아무도 없는 집 썰렁한 내 방까지 붕어빵 냄새가 따라왔다.

학교에서 받은 우유 꺼내려 가방을 여는데 아직 온기가 식지 않은 종이봉투에 붕어가 다섯 마리

내 열여섯 세상에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효근(1962~)

시인, 주요 시집으로 「어 느 대나무의 고백」, 「운동 장 편지」 등이 있습니다.



학습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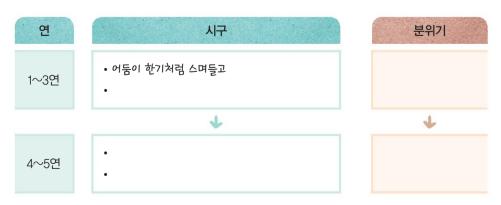


이해 활동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각 장면에 어울리게 이야기를 적 어 봅시다.



이 시에서 온도감을 드러내는 시구를 찾아 비교해 보고, 그에 따라 시의 분위기가 어 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봅시다.





- 1 이 시의 화자를 생각하며 아래의 활동을 해 봅시다.
 - 이 시의 화자를 다음과 같이 보았을 때, 그 근거를 시에서 찾아 말해 봅시다.



2 1의 활동을 바탕으로 이 시를 감상한 내용을 자유롭게 말해 봅시다.



시 속 세계를 전달하는 눈, <mark>시의 화자</mark>

시인은 시의 주제, 분위기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를 시의 화자로 설정합니다. 따라 서 시를 읽을 때 화자의 성별, 나이, 어조, 상황 등을 잘 살펴 감상하면 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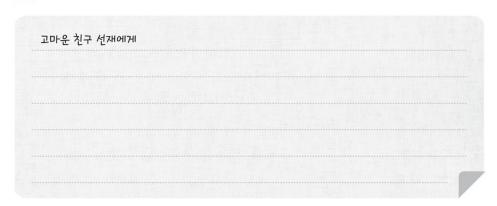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의 지난 경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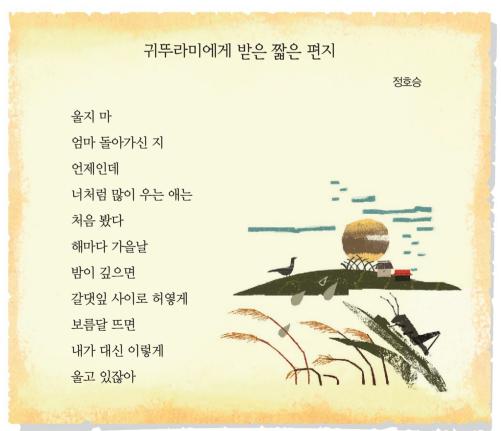
이야기하고 있는

어른 같아.

③ 이 시의 '나'가 되어 선재에게 짧은 편지글을 써 봅시다.



2. 다음 시를 감상하고, 화자에 따라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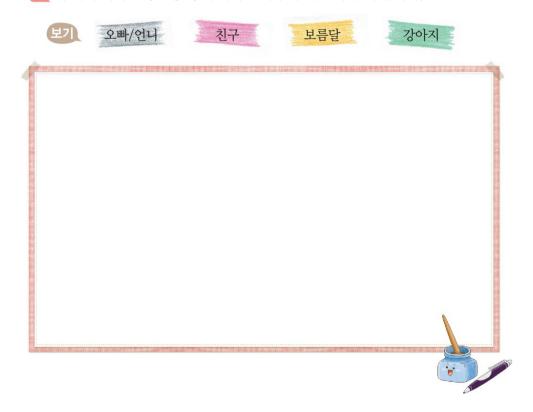
정호승(1950~)

시인. 주요 시집으로 『슬 픔이 기쁨에게』, 『수선화 에게』 등이 있습니다.



시인은 자기 생각을 가 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를 시의 화자로 선 택하며, 의도에 따라 시물 이나 동물 등을 시의 화자 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 1 이 시의 화자는 누구인지 말해 봅시다.
- 2 시인이 이 시의 화자를 1 과 같이 설정한 까닭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 ③ 이 시의 화자를 〈보기〉 중의 하나로 바꾸어 시를 다시 써 봅시다.



시의 화자가 바뀌면서 달라진 점들을 말해 봅시다.







┃ 다음 글을 읽고, 아래의 활동을 해 봅시다.

따뜻한 조약돌

이미애

6학년 땐가 몹시도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말없이 사라지는 아이가 있었습니 다. 반 친구들로부터 이유 없이 따돌림을 받던 아이는 늘 그렇게 혼자 굶고 혼자 놀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다가와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은하야, 우리 집에 놀러 갈래?"

그 애와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나는 좀 얼떨떨했 지만 모처럼의 제의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수업 끝나고 보자."

그날따라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발가락이 탱 탱하게 얼어붙고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지 만 한참을 가도 그 애는 다 왔다는 말을 하지 않 았습니다. 괜히 따라나섰다는 후회가 밀려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치밀기 시작 할 때쯤 그 애가 멈춰 섰습니다.

"다 왔어. 저기야. 우리 집."

그 애의 손끝이 가리키는 곳에는 바람을 막기 도 어렵고 함박눈의 무게조차 지탱하기 힘들어 보이는 오두막 한 채가 서 있었습니다. 퀴퀴한 방 안엔 아픈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안하구나, 내가 몸이 안 좋아 대접도 못 하 고……"

내가 마음을 풀고 그 애의 동생들과 놀아 주고 있을 때 품팔이를 다닌다는 그 애 아버지가 돌아 오셨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이 친구를 다 데려왔네."

그 애 아버지는 딸의 첫 손님이라며 날 반갑게 대했고, 나는 친구와 즐겁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그 애 집을 나설 때였습니다.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저…… 이거, 줄 게 이거밖에 없구나."

그 애 아버지가 장갑 낀 내 손에 꼭 쥐여 준 것. 그 것은 불에 달궈 따뜻해진 조약돌 두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약돌



두 개보다 더 따뜻한 것은 그다음 내 귀에 들린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집에 가는 동안은 따뜻할 게다. 잘 가거라."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돌멩이 난로를 가슴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